

연중 제 24주일 (가해) 화답송

(후렴)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 시나 자애는 넘치시 - 네

1.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 하여
2.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
3. 끝까지 깨닫지 않으시
4. 하늘이 땅위에 드높은 것처럼

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
네 모든 아픔을
끝끝내 화를
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
찬미 하여
없애시는
품지 않으시
자애 넘치

내 영혼아 주님을
네 목숨을 구렁에서
우리를 죄대로
해뜨는 데서 해지는 데가
찬미 하여
구해내시
다루지 않으시
먼 것 처

그분의 온갖 은혜
자애와 자비의 관을
우리의 잘못대로
우리의 허물들을
하나도 잊지 마
씻으시는
값지 않으시
멀리 치우시

D.C.

라
분
네
네

